

‘골육중’ 유아인, 병역면제 판정…후폭풍 부나

〈배에 생기는 악성 종양〉



배우 유아인이 1년6개월 동안 받은 총 다섯 차례 신체검사 끝에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 문제인 만큼 연기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소속사 “건강문제 최우선, 적극 치료”
누리꾼들, 병역기피 의혹 시선 여전
향후 연기활동 어떻게 변할지 주목

배우 유아인(31)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동안 입대를 둘러싼 논란에 줄곧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유아인은 병무청의 면제 판정으로 인해 의도와 무관하게 후유증에 휩싸이고 있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27일 “기존 질환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즉 병역 면제 판정을 이날 통보받았다”며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의 병역 면제 사유는 오른쪽 어깨 골육종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을 입은 그는 2014년 영화 ‘배테랑’ 촬영 때 부상 부위가 악화해 2015년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 어깨 근육 파열과 함께 골육종(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유아인의 군 복무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해 3월부터다.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마치고 입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군 복무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논란에 시달리던 그는 올해 2월 골육종 투병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덜어냈다. 당시 유아인은 “부상과 건강 문제는 나의 불행이지 병역 기피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면제 판정을 받을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5차례에 걸친 신체검사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차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 5월과 12월, 올해 3월14일 받은 신체검사서에서 전부 병역 판정 보류에 해당하는 7급(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이 나왔다. 이에 5월22일 5차 검사를 실시했고 한 달여 만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담당한 대구중앙신체검사소 관계자는 27일 “신체검사 결과 통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며 “(유아인의)결과와 통보가 지연된 데는 판정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면제 판정으로 유아인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중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군대 이슈인데다 부상의 여파로 면제 판정까지 받은 만큼 연기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아인은 이달 3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를 소화하고 어깨 치료를 받으며 병무청 통보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최근 2~3달 사이 영화계에서는 그의 영화 출연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 유아인은 평소 가깝게 지낸 감독이 준비하는 영화의 주연 제안을 받고 논의를 함께 해왔지만 면제 판정을 받을 즈음 해당 작품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방탄소년단, 비온세 건출만한 팬덤”
美 타임 ‘인터넷 영향력 있는 25인’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7일 발표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 등과 함께 방탄소년단을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The 25 Most Influential People on the Internet)’으로 꼽았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화제성을 검토했다”는 타임은 방탄소년단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인기를 집계하는 빌보드 소셜50 차트에서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를 제치고 27주 1위를 차지했다. 아티스트로서 아주 인상적인 위업”이라며 “비온세에 건출 만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화 이민우 경미한 교통사고…검사후 곧 퇴원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민우 측은 27일 “최근 그가 탑승한 승용차가 신화대기 중인 상황에서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혔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다만 후유증을 염려해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민우 측은 “곧 퇴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9일부터 ‘김지미 연기인생 60년’ 특별전

배우 김지미의 연기 인생 60년을 돌아보는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매혹의 배우, 김지미’ 특별전을 연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김지미는 370여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로 꼽히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길소뜸’, ‘티켓’ 등과 함께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끝내 제작할 수 없었던 ‘비구니’ 부분 복원판 및 관련 다큐멘터리 등 모두 20편을 상영한다. 김지미는 특별전 기간인 1일과 8일 관객과도 만난다.

서정희 ‘토코쇼 택시’ 출연…본격 방송활동

방송인 서정희가 케이블채널 tvN ‘현장토코쇼 택시’에 탑승한다. 서정희는 27일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했다. 서정희는 2015년 개그맨 서세원과 이혼한 이후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재개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내놓기도 했다. 서정희가 출연하는 ‘현장토코쇼 택시’의 방송 일자는 미정이다.

영화마케팅사협회 신입회장에 김광현 대표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협회)의 신입 회장으로 영화사 하늘의 김광현 대표가 선출됐다. 협회는 23일 오후 6시 서울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총회를 열어 신입 회장에 김광현 대표를, 부회장에는 호호호비지 이재현 대표, 머리꽃 송윤영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초대 신유경(영화인 대표) 회장과 2대 장보경(딜라이트 대표) 회장에 이어 3대 회장단으로서 2년 동안 영화마케팅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업무를 시작했다. 협회는 2013년 영화 마케팅사의 업무 현실을 개선하고 영화계와 함께 마케팅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22개사 1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올 여름 걸그룹 대전, 일본판 심상찮다

트와이스·블랙핑크·러블리즈·에이핑크
日 데뷔·투어 계획…다양한 매력 기대

여름이면 펼쳐지는 걸그룹 대전이 올해에는 일본에서도 벌어질 전망이다. 유망 케이팝 걸그룹들이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매력 대결에 나서기 때문이다.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러블리즈 그리고 에이핑크가 장외전쟁을 벌이는 주역들이다.

트와이스는 28일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을 발표하고, 30일 현지 대표 음악프로그램인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한다. 7월2일 1만석 규모의 도쿄체육관에서 2회에 걸쳐 ‘트와이스 데뷔 쇼케이스 터치다운 인 재팬’이란 제목의 쇼케이스도 펼친다. ‘뮤직스테이션’ 출연은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2012년 6월 소니시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쇼케이스는 애초 1회 기획했다가 신청자가 몰려 한 회 추가했다. 트와이스에 대한 현지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이어 블랙핑크는 7월20일 도쿄 부도칸에서 ‘프리미엄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8월9일 현지 첫 음반을 발표한다. 9월2일 ‘제25회 도쿄 걸즈 컬렉션’과 9월3일 ‘고베 컬렉션’ 등 일본 최대 패션 이벤트에도 연이어 출연한다. 데뷔 쇼케이스에는 지원자가 예상보다 10배 가까이 몰렸다고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9개월 만에 돌아온 에이핑크는 7월 새 싱글 발표와 함께 세 번째 일본투어에 나선다. 7월 25일 8번째 일본 싱글 ‘못도 고!고!’를 발표하



트와이스 일본 패션지 ‘Vivi’ 표지

는 에이핑크는 ‘스리 어서스’라는 제목으로 고베(22일), 나고야(26일), 요코하마(30일) 3개 도시를 순회하는 투어를 벌인다.

러블리즈는 8월 첫 콘서트를 갖는다. 8월5일과 6일 이틀간 제프 도쿄에서 첫 단독 콘서트 ‘2017 러블리즈 콘서트 올웨이즈 인 재팬’으로 팬들과 만난다. 5월 일본에서 9회에 걸쳐 프로모션 활동을 벌이며 데뷔 전초전을 치렀다. 이번 콘서트는 러블리즈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저마다 강한 개성과 색깔을 갖춘 국내 정상급 걸그룹들이다. 이들의 동시다발 활동은 상급발달한 매력, 청순소녀 콘셉트, 걸크러시 등 케이팝 걸그룹의 다양한 매력을 어필할 ‘종합선물세트’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케이팝 열풍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음악방송 1위…황치열, 10년만에 인생역전

〈뮤직뱅크〉

‘비 오디너리’ 첫 주 판매량 11만장
올림픽홀 이틀간 단독콘서트도 성황

가수 황치열(35)이 데뷔 10년 만에 인생역전의 시간을 맞고 있다. 데뷔 당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그는 10년이 지나 발표 첫 주 앨범 판매량 11만장, 음악방송 1위, 단독 콘서트 개최 등 정상급 가수로 평가받을 만한 웅만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을 건너낸 끝에 얻어낸 성과여서 뜻 깊다는 평가다.

황치열은 2007년 2월 ‘치열’이란 예명으로 셀프타이틀 싱글 ‘치열’로 데뷔하고 그해 첫 정규앨범을 냈다. 하지만 소속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활동 기회를 얻지 못했다. 2009년부터 생계를 위해 보컬트레이너로 생활했다. 중간 중간 프로젝트 싱글을 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2015년 엠넷 음악 예능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했다. 현 소속사 하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만나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KBS 2TV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가창력을 인정받았고, MBC ‘나혼자 산다’ 등 몇 편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6년엔 ‘중국판 나가수’인 후난위성TV ‘나는 가수다4’에 출연해 첫 경연 2위에 오르며 ‘황찌리에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한류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 싱글이 기대만큼 음원차트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고, ‘경연프로그램 전문가’ ‘예능형 가수’라는 꼬리표가 생겨났다. 일



황치열

부에서는 ‘거품론’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3일 발표한 미니앨범 ‘비 오디너리’로 그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켰다. 발표 첫 주 판매량이 11만장(소속사 집계)에 이르고, 23일 KBS 2TV ‘뮤직뱅크’에선 신곡 ‘매일 듣는 노래’로 지드래곤 ‘무제’와 겨뤄 1위를 차지했다. 24·25일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까지 열었다.

음반판매량으로 ‘팬텀 가수’임을 증명했고, 이틀간 5000여의 좌석을 채우면서 ‘공연형 가수’로도 주목받게 됐다. 아이돌 가수들이 점령한 가요계에서 남자 발라드 가수로서 거둔 성적 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원경 기자

“시리즈 중 최악…2954억원짜리 트랜스포머 안봐”

‘허술한 구성’ 관객 외면…겨우 200만
1535개 스크린 좌석점유율 7.6%뿐

관객은 냉정했다. 아무리 유명한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허술한 영화에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할리우드 인기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가 21일 내놓은 5편 ‘트랜스포머:최후의 기사’로 그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2007년 1편부터 2014년 개봉한 4편까지, 말개는 700만에서 적

어도 500만 관객 이상씩 거뜬히 동원한 흥행세가 무색한 수준이다.

개봉 2주째에 접어든 27일 현재 ‘트랜스포머:최후의 기사’는 1500여개 스크린에서 200만 관객을 가까스로 동원하는 데 머물고 있다. 개봉 당일부터 첫 주말 내내 1700여개 스크린을 ‘독점’한 상황을 고려하면 관객수가 저조하다. 시리즈 가운데 가장 낮은 기록이 예상된다.

좌석점유율은 더 처참한 수준이다. 26일 기준 7.6%(영화진흥위원회)까지 곤두박질쳤다.



트랜스포머:최후의 기사

이날 1535개 스크린에서 총 7001회 상영하고도 10만1060명을 동원했다. 국내 2400여개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정작 상영관의

90%는 텅텅 비어 있었다는 의미다. 유명한 할리우드 대작에 유독 ‘약한’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트랜스포머:최후의 기사’의 제작비는 2억 6000만 달러, 우리돈 2954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제작진은 극의 무대를 중세시대로 넓혔지만 방대한 에피소드를 허술하고 빈약하게 구성해 ‘시리즈 중 최악’이라는 악평에 시달리고 있다.

1편부터 연출을 맡은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번 5편을 마지막으로 하차한 상황이지만 제작진은 8월 시리즈의 번외편인 ‘범블비’ 촬영에 돌입하는 한편 2019년 개봉을 목표로 6편 제작에도 나선다.

이해리 기자

음악 랭킹

자료:멜론
6월 19일~6월 25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남이 될 수 있을까	불빨간사춘기 스무살
2	무제	G-DRAGON
3	처음부터 너와 나	불빨간사춘기
4	Shape of You	Ed Sheeran
5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
6	SIGNAL	TWICE
7	오늘 취하면 (Feat. 창모) 수란	
8	New Face	싸이
9	마지막처럼	BLACKPINK
10	NEVER	국민의 아들

편집 | 최혜경·김정호 기자